

# 1월 광주·전남 소비심리 '냉각'...건설경기는 희비

대형마트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  
광주 건설수주 전년 대비 반토막  
전남 수주액 민간 중심 193% ↑

새해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된 가운데 건설경기는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소매점 종류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2.1% 증가하며 비교적 선전했지만 대형마트 매출이 20.6% 급감하면서 전체 실적 하락을 이끌었다. 전남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1월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4.4% 감소해 광주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 여력 축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에서는 지역 간 온도차가 더욱 확연했다. 광주의 1월 건설수주액은 2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2% 감소하며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발주자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6.23% 줄었고 기계·장치와 부동산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40.9%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공장·창고와 주택 등 건축부문이 57.5% 줄었으며 철도·궤도와 도로·교량 등 토목부문 역시 14.8% 감소해 전반적인 위축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1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4천24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3.1%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운수·창고·통신, 석유·화학 등 민간부문이 388.2% 급증했고 공기업과 정부 등 공공부문도 142.5% 늘었다. 공종별로는 기타건축과 공장·창고 등 건축부문이 5천265.9%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발전·통신·조경공사 등 토목부문도 100.0%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2월 지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1천10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8% 감소했고 전남은 1조4천405억원으로 100.0%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1월에도 유사한 추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1월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자동차(24.6%), 담배(41.3%), 전자·통신(47.7%) 등의 증가에 힘입어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전기·가스업이 11.4%, 기타 운송장비가 16.0%, 금속가공이 18.0% 각각 감소하는 등 주요 업종에서 부진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0.6% 줄어 들었다. /안태호기자



봄동 값 한 달 새 30% ↑ '두바이 콘덕 쿠키'(두썬쿠에) 이어 '봄동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봄 제철 채소인 봄동 가격이 한 달 새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가락시장 봄동(상 등급) 15kg 평균 도매가는 4만8천841원으로 한 달 전보다도 1만원 넘게(29%) 올랐다. 지난달 11일엔 같은 등급의 봄동 가격이 6만456원으로 최고점을 찍는 등 최근 한 달간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시장에 진열된 봄동.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일일 생산 1만본 돌파

부분 재가동 3개월여만...정상화 본궤도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생산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공장장에서 1만 565본을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1만본을 넘어섰다. 화재가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로 생산이 전면 중단됐으며 7월 노사특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하루 4천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하루 생산량 6천본에 이어 목표했던 1만본을 달

성했다. 이는 대형 화재 이후 임직원들의 굳건한 책임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과다. 현장 정리 및 설비 복구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사적인 지원과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이번 성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1만본 생산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는 결과물이자 임직원들이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동료들 믿고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정 공장장은 앞으로의 공장 운영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멈추고, 품질이 타협되면 우리의 신뢰도 무너진다"며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정적인 품질 기준 위에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합평공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단계로 하루 1만5천본, 연 500만본 생산 규모로 오는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임채만기자

## 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22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포함 1-3학년  
광주은행은 5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생(휴학생 포함)이며, 이번 16기부터는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나이·성별·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홍보대사들은 팀별 프로젝트 기획과 수행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콘텐츠 제작 등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5일부터 22일까지다. /임채만기자

## 고영철 신임 신협중앙회장 취임 후 현장 행보 '눈길'

첫 일정 충북·강원·경북 10개 조합 방문  
건의사항 직접 청취... "성장 기반 마련"



신협중앙회는 고영철 신임 회장이 임기 개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취임 첫 주 일정을 농촌 및 소형 회원조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현장 행보는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소형조합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농소조합 성장 지원'과 '재무상태조합 정상화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 회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3일 충북 옥천의

합수신협을 시작으로 정주 문의신협과 원원신협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4일에는 강원 태백 한 마음신협·흥천신협에 이어 원주세브란스신협을 찾았다. 5일에는 경북 봉화신협·영주 알찬신협·예천한일신협·김천신협을 방문해 조합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지원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한다. 고영철 회장은 "신협의 경쟁력은 현장 조합의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한다"며 "농촌·소형조

합과 직장조합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중앙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상태조합 정상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방문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농소조합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 ▲재무상태조합 정상화 지원 체계 ▲현장 중심의 지도·지원 고도화 과제를 구체화해 후속 실행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임채만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